

태풍 링링 '순간초속 50m' 강풍...철탑도 넘어간다!

기사입력 2019.09.06. 오후 9:23 최종수정 2019.09.06. 오후 10:3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태풍은 특히 강풍이 걱정입니다.

거의 순간초속이 50미터에 육박할 정도로 기록적입니다.

초속 10미터만 돼도 무산 쓰기가 어렵다는데, 초속 50미터면 과연 얼마나 센 걸까요?

미유민 기자가 직접 바람의 위력을 체험해봤습니다.

[리포트]

태풍 링링이 몰고 온다는 초속 50m가 넘는 바람.

실제 지난해 일본에서는 태풍에 운행 중이던 트럭이 넘어지고 세워진 승용차조차 밀려 날 정도였습니다.

실제 바람의 위력 어느 정도 될까?

초속 12m만 돼도 우산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붕 위 기와가 벗겨지기 시작한다는 초속 20m.

눈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안전바를 잡아야 겨우 설 수 있습니다.

초속 30m, 쓰레기통이 벽으로 날라가고, 의자가 밀려나갑니다.

목조 가옥이 무너질 정도의 세기입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변을 분간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강한 비와 함께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설물이 다 넘어져 있는데요.

실제라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속 30m 강풍이 불고 있는데 어떠세요?)"]

위험해서 테스트 하지 않는다는 초속 40m 정도의 바람이 불면, 달리는 열차가 넘어지고, 초속 50m, 시속 200km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 철탑이 휘기도 했습니다.

[신동길/광나루 안전체험관장 :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했을 때는 건물 안으로 신속하게..."]

태풍이 북상하는 내일(7일)만큼은 외출을 최대한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기자(reason@kbs.co.kr)

13호 태풍 '링링' 피해 잇따라

초속 50m 강풍 위력...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입력 2019.09.07 (07:01)

취재K



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 서해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밤새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오는(7일) 새벽에는 서해상으로 진입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태풍은 특히 기폭적인 강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되는 최대 풍속은 무려 초속 55m(시속 2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속 50m가 넘는 속도의 바람이 대체 어느 정도로 강력하다는 건지, 숫자로는 피부에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해보고 왔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아늘에 걸쳐 서울 광나루 안전체험관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각각 태풍 체험을 하며 초속에 따른 바람의 위력을 제대로 느꼈습니다. 먼기 쉽게 강풍의 위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결기사 : 태풍 링링 순간 '초속 50m' 강풍...절탈도 넘어간다]

■ 초속 12m, 우산 뒤집히고 헬멧 벗겨져



초속 12m의 바람입니다. 우산을 펼쳤더니, 30초도 채 되지 않아 우산이 뒤집히고 뼈대가 휘었습니다. 3분이 가 지나자 쓰고 있던 헬멧도 벗겨졌습니다.

지난 6월 개성된 KBS 재난방송 매뉴얼을 보면 '풍속이 초속 10.8~13.8m가 될 경우, 큰 나뭇가시가 흔들리고 우산을 쓰기가 곤란할 정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파고가 3m까지 높게 일고, 물보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초속 20m, 몸 흔들리고 눈 뜨기 어려워



속도를 높이 봤습니다. 초속 20m가 되자, 눈을 제대로 뜨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몸이 흔들려 채항권에 설치된 안전바를 잡아야 중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람이 초속 17.2~20.8m 정도로 불 경우, 나뭇가지가 꺾이고 바람을 안고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또 가옥에 부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해상에서는 물거품이 강풍에 날리기 시작합니다.

■ 초속 30m, 물건 날아가고 몸 휘청



이번에는 초속 30m 강풍입니다. 바람이 분 시 얼마 되지도 않아, 쓰레기등이 벽으로 날아가고 의자가 밀려나갔습니다.

이 정도의 바람이면, 목조가옥이 무너지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또 해상에서는 파고가 11.5m까지 높아지고, 길게 줄서온 물거품이 시야를 가리게 됩니다.

■ 폭우 더해지니...간판 뒹굴고 시야 구분 어려워

■ 폭우 더해지니...간판 뒹굴고 시야 구분 어려워



초속 30m의 강풍에 시간당 100mm의 강우까지 더해졌습니다. 세워놓은 간판이 넘어지고, 우산과 물건이 날아갑니다. 실제 태풍이 강한 비를 동반하는 만큼, 간판 낙하나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체험관에 태풍을 체험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비바람을 체험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고글을 썼는데도 빗물이 들어와서 눈을 뜨기 힘들었고, 강한 빗줄기에 피부가 아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데다, 강한 바람 탓에 중심까지 잡기 어려워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좁은 체험실을 두어 바퀴 돌고 나니 함께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 비바람을 건디시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날 재현에 참여한 서울관광고등학교 2학년 김태환 학생은 "초속 30m의 바람이 이 정도로 쎄 줄은 몰랐다"며 "태풍 링링의 바람이 이것보다 더 강하다면 정말 제대로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초속 50m 강풍 대비하려면?

이렇게 강한 태풍일수록 이동 속도가 비교적 낮고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또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아도 태풍의 영향 반경은 보통 수백 km에 이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주민들은 지정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속대나 기옥 등은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강풍에 날아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사설물은 보강하거나 철사 등으로 단단히 묶어둬야 합니다.

거리에 세워둔 간판은 실재로 들어놓고, 소명장치가 있을 때는 누전에 대비해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하천변에 주차한 차량은 높은 시대로 옮겨야 합니다. 댐파제가 없는 일부 섬 지역에서는 아예 선박을 문으로 끌어올려 놓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태풍이 주거지 인근을 치날 때는, 아예 밖을 나가시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기눌 수 없을 정도의 바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재님은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태풍 링링의 피해,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기자의 기사 모음